



통권 43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5. 5. 9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4월 22일 열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7차 정기총회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의 송환을 다시 촉구한다



▲ 95년 4월 18일 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왼쪽 세번째 분부터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선생님.

지난 4월 18일 기독교교회관 대강당에서는 오랫동안 북녘송환을 요구해왔던 전 인민군 출신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사회단체, 종교, 언론계에 자신들의 여생을 고향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송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고향이 군사분계선 북쪽이었음과 1950. 6.25 전쟁당시 인민군 또는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점, 그리고 후퇴시 퇴로가 막히어 부근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포로로 잡혔다면,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 정신과 7·27 휴전협정 내용에 따라 원칙지로 송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분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 분단과 전쟁의 아픈 상처를 새삼 절감하며 이 상처는 비단 이 세 분만의 것이 아닌 7천만 겨레 모두의 것이고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는 일은 바로 참된 민족화해와 자주적 평화통일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재확인 하게 되었다. 물론 이분들은 여러해 전부터 통일원과 적십자사,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들에 고향으로의 송환을 호소해 오고 있었고, 민가협 등 인권단체들은 이분들의 호소가 정당하고 또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반드시 송환되어야함을 주장하며 통일원과 적십자사를 방문하고 문서로 촉구하기도 했었다.

전쟁포로로서 원적지 송환을 요구한 일은 이분들만이 아니었다. 이미 잘 알려졌다듯이 1993. 3.19 전인민군 중군기자 이인모 노인은 그 자신이 끈질긴 주장끝에, 그리고 남북겨레의 요구와 양 당국의 현명한 조치로 북녘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다. 반세기를 갈리어 서로 겨루어 오며 피를 흘리고 미움으로 맞섰던 남북사이에 이 경사스러운 합의야말로 민족문제 해결의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7천만 겨레모두에게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하는데 충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이인모 노인을 보냈던 논리와 이유로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도 송환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물론 지금 남북사이엔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 북미 제네바합의문 이행여부를 놓고 동북아의 국제관계는 팽팽한 줄다리기로 맞서고 있다. 그리고 민족문제 해결의 큰 줄기에 비한다면 이 송환문제는 작은 가지 일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 볼때, 실제로 그당시 전쟁포로의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리고 휴전협정으로 이행했다면, 34년 억울한 옥살이와 그 후유증과 늙고 병든 몸으로 어려운 노동을 하며 혈육없는 외로움속에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미 1953. 9.27 이전에 고향에 갈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 또한 사실이다.

인간의 잘못된 이기심으로 비롯된 전쟁행위와 거기에 동원된 병사들의 맹목적 살륙, 전쟁포로의 비인간적 대우 등 이 모든 야만행위도 인간사회가 문명화되면서 자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쟁의 가장 참담한 상황에서조차 포로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우는 교전국 어느 쪽이든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세계의 '중요 문화국가'가 가입했고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해도 적용되도록 돼있는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약 정신"도 인권에 대한 문명인으로서의 절실한 책무로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가 이 세분의 송환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국제협약의 규정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땅에서 벌여졌던 그 처절한 동족상잔의 총성이 멎은지 43년이나 되었고 남북사이엔 끊임없이 끌고 당기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92. 2.16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합의서 정신에 따라 지금과 같은 대결과 경쟁을 그만 두고 민족의 공동이익과 존엄을 위해 노력한다면 바로 민족자주와 평화통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화해국면의 계기로 이 세분의 송환 또한 좋지 않겠는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는 물꼬를 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또한 열린사회의 인도주의 실천으로서 이분들의 송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으로 갈라진 가족들의 '사무치게 그리운' 편지 사연들과 '베이징'을 통해서 두 가족들이 서로의 육성을 보낸 일들은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린 바 있다. 인도주의 정신에 무슨 조건이 있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정략이 개입될 수 있겠는가.

사람사는 사회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7천만 겨레에게 특히 천만 이산가족에게 큰 희망을 주고 세계에 대해 우리 민족의 인도주의 정신과 앞서가는 문명사회의 슬기를 보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양심수후원회 제7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제7차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2일 늦은 3시부터 6시까지 종로성당 3층강당에서 후원회원 과 축하손님 등 170여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힘찬 결 의로 치루어졌습니다.

총회 <1부>는 이균영 운영위원의 사회로 여는 말씀, 민중의례, 박용길 지도위원의 모시는 말 씀 그리고 권오현 회장의 내빈소개, 총회준비위 원장이신 김승훈 신부님이 총준위 경과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어 6차년도 사업보고(회장), 감 사보고(김규철 감사)를 다른 의견없이 받아들였 고 이어 지도위원 추대가 있었고 지도위원께서 6차년도 후원회원으로서 열심히 뛰어주신 7분 의 고마운 회원에게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감 사패를 주셨습니다. 감사패 증정이 끝난 다음에 는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 쪼개어 주신 가수 안혜경 회원께서 축하를 불러주셨습 니다.

총회는 또 7차년도를 이끌어 나갈 새일꾼으 로 회장단과 운영위원은 총준안을, 감사는 총회 추천으로 뽑았습니다. 이어서 이정규 운영위원 이 제안 설명한 7차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을 큰 박수로 채택하였으며 신영복(통혁당 사건 20년 옥고치름, 성공회신학대 교수), 천영세(전국연 합 공동의장), 김종철(한겨레 논설위원) 선생님께 서 격려말씀을 해주셨고 이덕우 7차년도 부회장 께서 힘차게 낭독한 총회결의문을 크게 손뼉쳐

서 채택함으로써 1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2부> 순서는 한양대 탈폐모임 “여든여덟” 회 원들의 신명나는 풍물놀이로 열고 이어 민요연구 회의 황경선 회원께서 민요와 춤을 가르쳐주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모성룡 회 원의 사회로 광인열전, 단대 법사회학회 등의 회 원들과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 그리고 민가협 어 머니들이 좋은 말씀과 노래를 불러주셨고 조출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다시한번 후원회가 95년에 꼭 이루어야 할 일을 되새겼습니다.

이부영(민주당 부총재), 장영달(민주당·국회의 원), 이철(민주당·국회의원), 한상렬 목사님(전주 고백교회), 국제 엠네스티한국지부, 한청협(의장 유기홍), 정상시 목사님(안양 박달교회) 등 여러 곳에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패를 받으신 분들

1. 김충례 님

양심수후원회가 꾸러지고부터 이제까지 한결 같이 후원회의 살림을 위해 힘써주셨습니다.

2. 모성룡 님

양심수후원회의 크고 작은 여러 행사 때마다 헌신적으로 앞장서 도우며 회원들의 단합에 힘

써주셨고 많은 후원회원들을 모아주셨습니다.

3. 이정태 님

우리 후원회의 곳은 일을 도맡아 해주셨고 특히 94년 낙성대 만남의 집에 불이 나서 다시 고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서 하며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을 열심히 보살펴 오셨습니다.

4. 임은영 님

지난 한해동안 금재성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보살펴 드렸습니다.

5. 최재형 님

민가협이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때마다 무거운 짐들을 옮겨 주시는 등 크고 작은 일에 애써 주셨습니다.

6. 홍전영 님

우리 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사무국 실무에 큰 일손이 되어주셨고 특히 <후원회소식> 창간 때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이 편집위원으로 헌신적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7차 총회에서 새로 뽑힌 일꾼들

□지도위원(추대)

김승훈(여의도 성당 주임신부님)

박현서(한양대 사학과 교수)

박용길(통일맞이 칠천만 거래모임 이사장)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대표, 한겨레는 설위원, 새로 추대)

조만조(전 민가협 공동의장, 새로 추대)

□회장단

권오현 회장(다시 뽑힘, 민가협 공동의장)

이덕우 부회장(새로 뽑힘, 변호사,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지냄)

소수영 부회장(",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지냄)

□운영위원

김지영(다시 뽑힘,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균영(", 소설가, 동덕여대 국사학과 교수)

이정규(", 출판사 근무)

홍일선(새로 뽑힘, 시인, 전 민족문학 작가회의 사무국장)

정인숙(", 전 천주교 노동사목 전국협의회 회장, 영화 전태일 제작위원회 집행위원장)

탁무권(", 출판업,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치름)

□감 사

진관(다시 뽑힘,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윤성식(새로 뽑힘, 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바쁘신 틈에도 후원회 일을 맡아 주셨던 윤정모(부회장), 김영옥(운영위원), 김규철(감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 간사

송록희, 송소연



뒤를 떠받쳐주니까 한결 든든할거예요

편집부

부끄러웠다. 내가 그날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 전방입소 결사반대를 외치며 온몸에 불을 당겨 한 점 꽃잎처럼 스러져간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9주기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4월 28일, 제6기 전대협위원장 태재준(서울대 국제경제학과 88년 입학) 군의 어머니 이양자님은 3시부터 있을 추도식에 대어 가기 위해 서울대를 향하고 계셨다. 신이 넘으신 어머니께서도 잊지 않고 계시는데, 그 뜨거웠던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내가 그날을 망각했다니. 그러나



▲ 민가협 목요일집회에 나오셔서 태재준 군의 사진을 들고 계시는 이양자님. "한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싹을 틔우는 것처럼 옳은일이니까 기꺼이 해야지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어찌 이것 뿐이랴?

우리 곁을 떠난 수많은 청년열사와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서 수의를 입고 있는 선배, 동기, 후배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에서도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재준이는 참 온순하고 항상 웃어요. 감옥살이 해도 더없이 맑고 명랑해요. 자랄때도 속썩인 적이 한번 없었지요."

어머니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시며 한껏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다. 생각만으로도 어머니의 가슴을 자랑과 긍지로 넘치게 하는 아드님을 감옥에 두고 속앓이를 얼마나 하셨을까마는, 겉으로는 그런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도 처음엔 속 상하고 애 태우고 다니다보니 눈썹사이에 내 천자 주름이 생기더라구요. 그렇지만 지금은 될 수 있는 한 밝게 살으려고 해요. 내 아들이 옳은 일 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야지요. 지가 고생스럽고 부모가 좀 힘들긴해도...내가 제일 속상했던건 박홍 총장이 KBS TV에 나와 가지고 주사와 운운하면서, 학생들이 죄다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 것처럼 떠들어대던 거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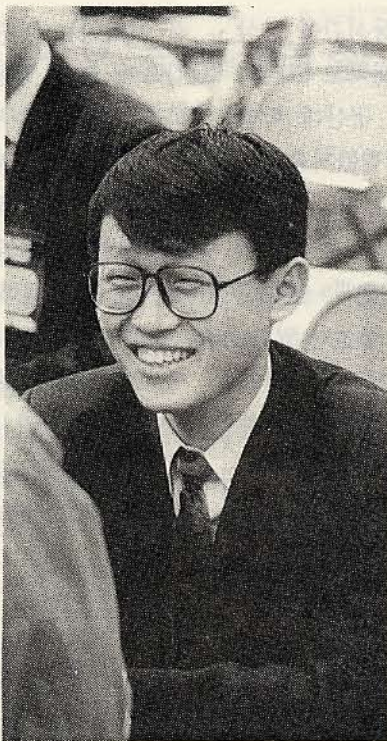
올해는 그의 활약상(?)이 작년만큼 눈부시지는 않지만, 지난 해에는 그가 입만 뵙갓하면 언론이 대서특필해서 온 사회를 매카시적인 공포로 떨게 만들었는데, 그해 여름 어머니는 <한겨레신문>에 글을 써보내셨다. 92년도 전대협 발대식때 베를린의 범청학련을 통해 북한의 김책공업대학과 전화통화 한 것을 온세상에다 공개

했고,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끼리 교류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또 공소장에도 ‘주사파’라는 말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조목조목 따지셨다고 한다.

“재준이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4년 2개월을 선고 받았어요. 이적단체와 교신했다는 거와 8.15 때까지 대학에서 인공기를 내걸었다고 그런거죠. 세월이 흐르면 문제 될게 없는 일 아니예요?” 그러고보니 얼마전 일본의 설치 미술가가 남북한의 분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려다가

당국의 경직된 사고 방식 때문에 끝내 작품이 전시장에서 철거되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일이다. 인공기와 태극기를 채색모래로 그려놓은 유리관 사이에 가느다란 줄을 이어 개미들이 양쪽을 오가게 함으로써 결국은 유리관에 그려진 본래의 모습이 형클어짐을 통해 분단 극복을 암시하려했던 작품이었다. 국기가 훼손되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했지만 사실은 태극기와 나란히 놓인 인공기가 문제였고, 돌덩이처럼 굳어진 획일적인 사고방식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다.

“재준이가 어렸을 때 늘 친구 할머니가 하시는 노점에서 물건을 사라고 그래요. 한 번은 밤에 생선을 노점에서 샀는데 상한 거예요. 물러간다고 하니 재준이가 ‘엄마, 그 사람이 얼마나



▲ 전대협 제6기 의장 태재준 서울대 총학생회장

애가 됐으면 그런 걸 팔았겠냐’고 그러더라구요. 애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2학년 늦가을 쫓 하루는 재준군이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단다. 다음날 들어와서는 술마시고 친구네 집에서 잤다는데 어머니 생각에는 탄곡질이 있을 것 같았다. 호주머니에서 마스크가 나오고, 최루탄 가스 냄새도 종종 맡게 되던 터라 몰래 일기장을 보니, 사당동 철거민들과 밤을 지새우고 온 것이었다. 천막에서 철거민들의 난입을 근심하며 하룻밤을 자는데, 어찌나 추운지 아끼까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마음 아파하는 내용이었다.

“애가 수줍음이 많아서 국민학교 다닐때는 여자 친구 집에 생일 초대를 받아 갔는데 부끄러워서 들어가지도 못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애 아빠나 나나 교수나 학자가 되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아들이 정작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니까 나도 아들로해서 민주화니 통일이니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어요.”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수갑차고 수의 입은 아들을 볼때면, 편히 살 수도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마음이 아프시단다. 특히 몹시 추운 겨울날 단식투쟁을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셨단다.

“93년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 어찌된 일인지 더 조여오더라고요. 군산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바뀌면서 운동시간에 양심수들만 따로 격리시킨 채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맞서 싸웠지요. 민가협 어머니들, 군산대 학생들하고 한 이틀 무섭게 싸워서 해결됐지요. 문민정부라 하지만 전, 노 시절보다 더 하잖아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서 보낸 ‘막내’ (재준군은 2남1녀중 막내)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요즘은 민가협에 나가세요? 건강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틈틈이 나가세요. 김영삼씨 정치하는 것 보면 화도 많이 나실 테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되겠나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겠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얘기하시는게 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민주화’ ‘개혁’ ‘통일’이라는 시대적 대세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1-2년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의 차이지요...(중략)” 밖에서 떠받쳐주고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날려 보내고, 어머니와 아들은 그렇게 길고 긴 4년을 보내왔던 것이다.

“즈이 아빠도 재준이를 굉장히 사랑해요. 부모가 자기 편이어야지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뒤를 받쳐 주니까 한결 든든할 거예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 꼬박 하루품을 들여야 막내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있다. 군산에서 안양까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에 잠기셨을까? 거리에서 마주치는 여느 어머니들과 똑같은 어머니. 그 연세면 흔히 있는 관절염으로 힘드실 텐데 탑골공원의 목요집회에도,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집회에도 빠지지 않으신다.

재준 군이 총학생회와 전대협 일로 집에 못들어오고, 형사들이 통닭집까지 쫓아다니고, 가슴 졸이며 잡히지 않기를 기도했건만 옥인동 대공분실로 아들을 면회하러 던 일... 이 모든 것

을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신다. 오히려 감옥에 오래 있는 분도 많은데, 재준이 얘기는 다음 차례로 미루자고도 하신다.

“저는 냉방에서 고생하고, 엄마는 바깥에서 떨고, 솔직히 그럴 때면 회의가 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싹을 틔우는 것처럼 옳은 일이니까 기꺼이 해야지요.”

지하철을 타러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곁에 태재준 군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고 사는 나자신을 꾸짖으면서.

(중략) 어머니, 요즘 ‘모래시계’ 보sey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요? 70년대 말, 80년대 초 참혹했던 시절에 그 아픔을 공유했던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나 봅니다.

어머니, 80년대 시대정신·시대의 요구·은 군정종식과 자주·민주·통일이었습니다. 군정종식은 이루어졌으나, 자주·민주·통일의 과제는 아직未完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 정보화사회, 세계화, 신세대 문화의 등장 등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80년대에 완수하지 못한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흐름의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려 보면서 이전 흐름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세대가 잘해야겠지요. 제가 80년대를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조금이나마 그 대역속에 있었고, 다른 한편 90년대의 초반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80년대의 문제의식을 잘 계승하면서도 90년대의 새로운 흐름도 적극 수용해야지요. (중략)

군산에서 막내 재준 올린



살갑게 다가오는 인간의 삶, 그속에서

고제현 회원

햇살 따사로운 아침이다. 신담 전철역에 내려 만나는 봄은 야릇한 흥분과 활기를 준다. 전철역 공원 화단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던 민들레 노란 꽃잎들이 어느새 흙씨가 되어 세상 구석구석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의 마음으로 참세상에 대한 간곡한 소망을 담아 민들레 흙씨를 날리고 싶은 아침이다.

전국장애인강아지협회에서 사무간사로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0일이 넘어가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 그리고 생각한 것이 누구를 도우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가였다. 그 당시의 결론으로 그 대상은 장애인이었다. ‘장애인이라는 존재규정은 영구적’이라는 것이 사회, 경제, 문화적 소외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는 생각때문에 작지만 내가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대학을 다니며 접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과 책들을 통해 누가 누구를 돕는 일방적인 관계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함께 일하는 사무실 사람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이루는 새날, 사회 경제적 주체로 비로소 당당해질 새날을 준비하는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동지”일 뿐이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임을 알게된 것은 봄 별만큼 마음 따사로운 일이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면서 장애인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 교육 뿐만이 아니라 의료, 노동, 각종 편의시설의 문제 등 장애인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산더미처럼 높아져 있었다. 작게는 우리 일상에서 부딪치는, 비장애인은 느끼지 못하는 도로터에서 크게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소외까지 장애인 문제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든가 인간의 기본 생존권인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제약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좀 격한 말로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들에서 소외되고 작위적인 동정의 대상으로 되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모두가 저지른 범죄일 수도 있다. 얼마전 길거리에서 테이프파는 노점을 하시던 한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받은 30여년 설움과 분노로 분신, 사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 장애인 생존권에 대한 절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분은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껌팔이, 수세미 장사 등으로 최대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으나 “거리미화”라는 몰인정하고 비인권적인 행정처리로 좌판을 뺏기고 결국 마지막 가진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궁지에 몰린 장애인의 삶을 알리고자 했다. 이

번 일을 통해 그나마 거동이 가능한 경(輕)한 장애인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하는데 거동조차 힘든 중(重)증의 장애인인 경우 시장구석에서 초라한 좌판장사라도 하는 것은 국가에서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할 일이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간다거나 유명한 학자가 되는 것만 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는 아니다. 故 최정환씨처럼 몰인정한 세파에도 곳곳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살갑게 다가오는 우리 이웃이며 거기에는 장애인도 인간승리도 아닌 “인간의 삶”이 있을 뿐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삶의 격을 높여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장애인”이라고 어떤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적 불이익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 때문에 생기는 그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이다.

잠시 눈을 돌리면 양심수가 얼마나 있는지, 누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전국에 400만이나 되는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 채 살고 있다. 이 소식을 보시는 후원회원들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 장애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이 어떨지...

장애인이라는 존재규정처럼 “양심수” 혹은 “장기수”라고 규정되어진 채 감옥살이를 하는 선배님, 선생님들의 모습은 사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후 지금까지 늘 마음 한구석에 꺼지지 않는 미등으로 존재했던 것 같다. 힘들고 지쳐서 사람들이 싫어질 때 20년, 30년씩 신념을 지켜온 장기수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자신을 되돌아보며 힘을 얻곤 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후원회에 가입하고 얼마전부터 광주교도소에서 30년째 복역중인 김동기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있다.

처음 편지를 쓸 때는 연세가 많으신지라 어떤 말투로,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은 선생님께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자의적인 희망으로 한 달에 두번씩 곳곳하게 편지를 쓰고 있다. 첫 답장을 받았을 때 세대차 때문에 편지쓰기 어려워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면서 웃음이 났다. 답장에서 만난 선생님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자상한 오빠 같았기 때문이다. 편지를 통해 선생님의 살아온 역사와 95년을 살아가는 까마득한 후배의 생활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감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 물론 가끔 무모한 욕심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후원회의 가족이 된 이상 모범회원이 되기 위해 후원회 일에 욕심껏 참여할 것이다. 지면을 통해서지만 세상살이의 훈훈한 인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만 같은 후원회원과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다. 열심히 후원회에 참여하다보면 여름 햇볕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실제로 얼굴 맞대 인사할 날이 오겠지!



‘전쟁포로’ 함세환이 부르는 망향가

편집부

‘그리운 동생 세환에게.
네가 살아 있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병
범하구나.

40여년동안 행여나 하고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
온 누이가 지금 네이름을 꿈속에서처럼 불러보면
서 편지를 보내고자 하니 눈물도 나구 기쁘기도
하구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십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다는
데 그대 지금 몸은 어떠하나. 이 누이는 자나깨나
네 걱정뿐이다...’

철 쪽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의 마지막날.
제물포역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열아홉에
‘조국을 위해’ 총을 들었던, 유난히 손이 큰 청
년 함세환 선생님. (63세)

함선생님의 고향은 황해도 웅진군 웅진읍 도
원리 함촌. 함씨들이 한 부락을 이루고 살아 마
을 이름도 함촌이다.

함세환 선생님은 1932년 1월 18일 5남매중
막내로 나셨다. 근면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신
선생님은 46년 소학교를 졸업하신 후에도 고향
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셨다.

“어머니 생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김용건이란 본명 대신 ‘무던이’라 불리실 정도로
성격이 아주 무던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당신 자식
이 하는 일들은 무조건 밀어 주시던 분이셨죠.”

그러나 혼란한 해방정국은 함선생님 덕에까지
회오리를 몰고 왔다. 좌파운동을 하던 형님의
수배는 집안식구들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했다.

“아, 그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경찰이나 서
북청년단 사람들이 하루도 빠지않고 매일 집안
으로 몰려와 신발을 신은 채 온 집안을 뒤지고
식구들을 들들 볶아대고... 그때 나도 경찰에
끌려가 매도 많이 맞았서.”

가족의 얘기가 시작되자 함선생님은 꿈에도
잊지 못하는 고향의 사투리를 서서히 섞어 말씀
하신다. 선생님의 말투에서 황해도가 묻어 난다.

그후 함선생님의 형은 체포되어 7년형을 받
고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신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은 함선생
님의 삶에 굵직한 화두를 남긴다. 당시 19세 청
년이던 함선생님은 의용군에 자원입대 하신다.

“그때는 겁나는게 없었서. 필필나는 열아홉살
청년이었으니까. 그때 우리는 경남 창녕에까지 내
려왔는데 나중에 퇴로가 차단되서 입산을 했지.”

51년 무주 덕유산에 있을 때 일이다.

7월 17일 인민군들은 당시 덕유산을 찾은 해
인대학 학생들을 모두 산으로 끌고 왔다. 정치
학습을 한 후 그 대학생들을 ‘민족해방전선’에
합류시킬 목적에서였다. 당시 학생중엔 유가협
회장이신 박정기씨(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도 속해
있었다. 박정기씨는 산으로 끌려가던중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 대열을
빠져 나온다.

“93년돈가, 유가협 사무실에 들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우리 둘다 같은 장소에 다른 신분
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서. 나이도 엇비슷할
때인데. 적대적인 관계로 서로 맞서있던 두사람

이 이젠 동지가 되어 있는 사실이 웬지 몽클해서 서로 부둥켜 안은 적이 있어.”

입산후의 생활은 매일 토벌대와의 투쟁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투쟁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생활이었다.

상처뿐인 영광과 조국을 향한 청년의 순수한 사랑으로 버티며, 함선생님은 빨치산 활동을 하신다.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 간발의 차이로 죽고 살던 때이다.

“52년 전투를 나가 탄을 열두 발이나 맞아서. 슬쩍 스쳐 지나간 것도 있고, 관통한 것도 있어서. 그때 배에도 맞았는데, 아직도 몸에 탄이 박혀 있어서. 때가 때인지라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나중엔 상처에서 구데기가 생겨, 그놈을 손으로 잡아내기도 했는데 그땐 아픈지도 모르겠더라구.”

꼭 남 얘기 하시듯 아무렇지도 않게 52년을 말씀하시던 스물한 살의 열혈청년.

전투뿐 아니라 식량의 턱없는 부족도 커다란 적이었다.

53년 1월, 식량이 바닥나 전대원은 곤란을 겪고 있었다. 산 아래서는 군인들이 완전 포위를 하고 있는데다, 사람이 빠지도록 쌓인 눈 때문에 보급투쟁도 여의치 않았다.

“저녁때 누군가 산아래 식량을 묻고 가는데 보이길래 3명이 내려 갔서. 쌀독을 열어 보니 쌀이 가득해 그것을 지고 왔서. 빈 쌀독에는 물론 쪽지와 함께 쌀값에 해당하는 돈을 넣어 두었지. 우린 절대 민중의 것을 바늘 하나라도 그냥 가져 오는 법이 없었으니까.”

아침이 되어 쪽지를 발견한 주인은 충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비를 가지고 나와서는 눈을 쓸기 시작했다. 빨치산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민중에 대한 신뢰. 함선생님이 오랜 감옥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이다.

53년 6월 2일. 함선생님은 4명의 부하를 이끌

고 보급투쟁을 나오셨다. 물붓듯 비가 내리 쏟아지던 초여름. 2명의 여성대원과 2명의 남성대원과 함께 선생님은 야지에 매복해 있었다. 초여름의 신록이 서럽도록 푸른 속리산 하강터에. 그러나 1개 중대의 군인과 경찰 수색대와 교전을 벌이던 중 다른 부하 대원들은 모두 전사하고, 함선생님은 4발의 총을 맞고 체포되신다.

안동 특무대에서 취조를 받고 54년 무기를 선고받아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신다.

“체포 당시 ‘나는 인민군 포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본대에서 떨어져 6개월 이상 생활 했기 때문에 정규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끝난 뒤에는 지체없이 석방되어 송환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60년 4·19혁명이후 장면정권이 들어서며 함선생님의 형기는 20년으로 감형되어 73년 6월 25일에 출소하신다. 스물 두살의 청년이 살은 날만큼 갇혀 있다 마흔 둘이 되어서야 감옥문을 나설 수 있었다.

“출감후 대전 갱생보호소에서 생활을 했지만,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쫓겨났서. 그래 성남으로 올라와 월세 3천원하는 방을 얻어 여러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했지.”

보통 남자 같으면 탄탄한 가장이 되었을 그



▲ 노래와 춤숨새가 멋드러지는 함선생님. 만나기전에는 '않지도, 죽지도 않을 작정' 이신 웅진의 누이를 하루 빨리 만나 보시게 하는일. 우리의 몫이라.

나이에 선생님은 훌훌단신이셨다.

“75년 7월 23일, 그날 중복이었서.”

사회안전법에 의해 함선생님은 다시 대전교도소와 청주감호소에 수감되어 또다시 14년을 감옥에서 보내신다. 사회에서 생활한 24년 보다 10년이 많은 34년을 감옥에서 보내신 인민군 포로 함세환 선생님.

89년 8월 7일 청주 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함선생님은 과수원에서 일을 하시다 대전 부화장으로 옮겨와 일을 하셨다. 부화장안의 온도나 습도를 맞추기 위해 3시간 간격으로 기계를 돌리는 것과 전등이나 소등을 점검하는 일이었다.

92년 환갑. 젊은 날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셔야 했던 선생님께서는 잔칫상을 차려 줄 아내도, 자식도 없었다.

“대전 민가협과 충남연합에서 환갑 잔칫상을 차려 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부화장에서 노골적으로 일을 줄 수 없다며 나가 달라고 해 해고됐서.”

우여곡절 많은 인생의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을 축하하는 회갑잔치 조차도 선생님께 순탄하지 못했다.

그후 함선생님은 보일러 설비공으로 일하시며 삭월세 방을 구해 생활하시다 93년 11월 기독교인권위를 비롯한 대전 충남지역 후원단체가 무연고 출소 장기수를 위해 마련한 ‘사랑의 집’으로 옮겨 생활하신다. 93년 3월 출소하신 김명수 선생님, 6월 출소하신 김용수 선생님, 그리고 홍문거 선생님과 함께.

현재 선생님의 가장 큰 희망은 얼마전 북으로 올라간 이인모 선생님처럼 선생님도 북으로 송환되어 한순간도 잊지 못하던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난 4월 8일 들은 조카와 누이의 육성은 선생님의 가슴을 더욱 급하게 한다.



“새벽 2시 반이 다 되었는데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지 않았서. 전화를 받았더니, 북경을 통해 생질이 전화를 해서. ‘외삼촌이에요? 저는 조카 백정권입니다’ 하더니 울먹이느라 말을 잘 못하더라구. 북으로 송환 되는날까지 건강하라고 신신당부하며 누님의 육성데이프를 틀어줘서 사십오년만에 누이의 음성을 들으니...”

열아홉에 조국을 위해 총을 들었던 전사도 ‘누이’의 이름앞에선 목이 메인다.

산을 좋아해 매년 1월 1일이면 지리산에 올라 동해를 박차고 떠오르는 일출을 보신다는 함세환 선생님.

산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청년을 좋아하시는 함세환 선생님은 묶인 포로시다. 이제 함선생님은 본적지로 송환되어야 한다.

동해안에서 보신 일출을 설명하시며, “동해에서는 이따만한 해가 몽클 몽클 올라옵니다.”며 양손으로 공중에 커다란 원을 만드시는 마음이 깨끗하신, 소년같은 선생님의 얼굴위로 여든 살 누이의 편지가 읽혀 지고 있었다.

“여기서도 너를 데려 오려고 힘쓰고 있고 남에서도 고마운 분들이 도와 나섰더니 우리가 반갑게 만날 날이 꼭 올게다. 신심을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곳곳이 살면서 상봉의 날을 기다려다오. 이 누이는 네가 돌아오기 전에는 잃지 않고 죽지도 않을 작정이다. 네가 돌아 오기를 기다리는 고향사람들을 생각해서, 누이를 생각해서 부디 잃지 말고 몸조심하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만날 그날까지 잘 있거라. 웅진에서 누이 함숙녀 보냄.”



목요일의 외침

저는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김무용 강사의 동생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오빠가 현대사 연구활동의 성과로 쓴 빨치산 연구가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또 그것은 북한 정권을 '찬양'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보법 사건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제 생각으로는 김무용씨 사건도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검경이 무려 한달여에 걸친 조사끝에 나온 기소장에도 그 죄목이 매우 불확실하고, - 대부분 불온서적(?) 소지 및 개인 연구논문의 주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북한을 고무, 찬양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붙여 -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꾸며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설혹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미루어보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도 마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처럼 지나치게 확대해석 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인권마저 부인, 거부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학문적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뭏든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은 물론 본인이겠지만 그 가족들의 고통도 결코 적지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본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부인과 아이들의 고통은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아이는 엉뚱하게도 아빠와 생이별을 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빠를 엄마보다 더 따르던 조카는 특히 잠자리에서 꼭 아빠를 찾으며 우는 바람에 엄마가 몹시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제법 시간이 흘러 익숙해졌으리라 믿어지는 요즈음에도 그 아이는 자신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아빠가 오랫동안 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주 후회하고 반성하는 바람에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 문제는 사실 아이 자체뿐만 아니라 정작 당사자인 김무용씨에게도 아주 힘든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는 이 사건이 진행중인 현재까지도 아이의 말만 나오면 매우 침울해지고, 아이를 구치소에 절대로 데려오지 말라는 말을 간곡히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다른 가족, 친구들도 귀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국가적으로 귀한 인적 자원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되어야 합니까? 이런 시간에 차라리 한미간 무역분쟁 문제를 좀 더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면 국가적으로 훨씬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이처럼 무고한 사람에게 없는 죄목을 만들어 본인과 그 주변사람들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 법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지장과 해악을 가져오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더우기 전세계적으로 인권차원에서 국보법이 폐지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나라만 굳이 고수해야 할 이유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쓸데없이 만들어진 범죄에 기소되는 억울한 사람은 없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저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무용 님(34세 방통대 강사)은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위 글은 민가협 목요일집회에서 김은숙 님이 오빠의 석방의 촉구했던 주장글입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

땅을 일구어 봄을 심습니다

양희철 선생님(광주교도소 수감중)

안녕하셨는지요? 보내주신 '말' 지 잘 받았습니다. 짐작했거나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사화된 내용을 접하게 되면 스스로의 확인 작업 같아서 또 흥미를 돌구곤 합니다.

춘분이 지나고선 저의 일과는 좀 서툴러야 했습니다. 시간 죽이기가 아니라 시간을 저축(?)하는 작업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이었지요. 일요일을 제하고 하루 시간반의 잠을 집약적인 노동으로 짜 넣는 것입니다. 땅을 일구어 흙을 만들고 봄을 심는 일입니다. 가을쯤에는 색다른 봄이 줄줄이 달리고 골골에 저장돼 있음을 발견하는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요 며칠 땀과 땀이 흘러며 일을 했지요. 해마다 저의 가난한 화단을 생기 넘치게 자라주고 피워준 꽃씨, 뿌리들을 뿌리고 심으며 케일(이 케일은 지난 가을에 심어 월동한 놈인데 종자용으로 쓰고 남은 150여 포기 가 싱그럽게 커나가고 있고 두텁고 윤기나는 잎은 요즘도 저희들 식탁에 올려져 있습니다.) 들깨, 상추, 쪽갓 같은 남새를 심는 것이사 전주에서 대전에서 또 옛날 이 곳 광주에서도 했던 것이니 새로울 게 없지요. 지난 해 호박과 호롱박으로 마음도 입도 호뜻하고 즐거웠습니다. 금년엔 그것도 심고 가꾸겠지만 지금까지 별로 시도해봄이 없었던 수박과 단호박을 심어 봤습니다. 모종으로 만들어 옮겨 심은 것이 아니라 씨앗을 소독(파리약으로 잠깐 분무한 씨앗을 맑은 물에 씻어서 소독을 대신합니다.)하고 물에 불려 깨끗한 헝겊에 싸 따뜻한 물통 옆에 놓아 뿌리가 1-2센치쯤 자란 걸 본포에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단순히 심는 것이라면 일의 복잡성이 있을 수 없지요. 둔덕을 파서 지난 해 가을 잔반(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과 낙엽과 베어논 풀을 섞어 만든 두엄을 모래와 섞어 구덩이에 넣는 작업이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단호박을 싹틔워 심는 것을 마지막으로 거름하고 씨뿌리는 작업을 일단 마쳤습니다. 모종용 들깨를 좀 더 해야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 어떻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선생님! 저의 성미라고 할까요. 하기사 산을 뒤흔치고 밭이란 일구며 인생초기의 삶을 산골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성미랄 것도 없는 생활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군요. 무엇이냐고요? 가축을 무척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소, 염소, 돼지, 개, 닭 등 가축을 다 좋아했어요. 그 놈들이 저를 그렇게 잘 따르드라고요. 제가 개를 하숙집에서도 길렀습니다. 동물만이 아니라 온갖 식물도 좋아합니다.

이름 없는 잡초라 할지라도 깨진 그릇이나 음료수 병 잘라서 심어놓으면 그게 곧 화초가 됩니다. 선생님! 지금 저는 공작 선인장을 방에서 월동시켰습니다. 꽃 눈인지 모르겠으나 빨간 색으로 물든 어린 눈이 하얀 헛수염을 땃개나 길러낸 한 가운데서 눈웃음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놈의 꽃은 진붉은 백합모양의 통꽃을 피워내는데 다른 선인장과는 달리 한 번 피면 3일은 갑니다. 또 밖에 두었습니다만 화분에 심어놓은 라일락이 꽃눈을 제법 키워내고 있는 중입니다. 구겨진 정서를 펴고 저장된 감정을 다독여주는 대상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선생님께 글월 율릴 때쯤 수박 녀름에 대해 말씀드리게 될거예요. 가을이 수확이 있기전 수박의 단맛을 볼 것인지는 모르나 기르는 과정 그것만으로도 노고에 대한 보상은 받은 셈이거든요.

선생님, 오늘 이만 줄이면서 그곳 모든 분의 건강하심을 빕니다.

- 양희철 선생님은 1934년 9월 25일 전북 장수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33년째 감옥을 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있었어요

- 4 · 3
 -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제19조) 피해자 김진경씨 등 19명은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0만 원씩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후원회 소식 42호 참조)
 - 민청학련 운동 21주기 기념모임이 있었습니다.
 -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 송환추진을 위한 인권단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 4 · 4
 - 양심수후원회 제7차 정기총회 총준위 2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2차 모임은 2월 운영위원회 회의까지 함께 했습니다. 2월 재정보고, 사업보고 등이 있었고 7차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회칙등을 검토했습니다.
- 4 · 5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가수 안혜경 님이 좋은 노래를 불러주셨고 전경희 씨 어머니님이 사위 백태웅(사노맹 중앙위원. 15년형)씨에게 보내는 편지 등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게 최초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 4 · 9
 - “인혁당 재건” 사건으로 구속되어 유신정권하에 의해 처형당한 이수병 선생 외 일곱분의 20주기 추모식이 독립공원에서 있었습니다.
- 4 · 10
 - 〈후원회소식〉 42호를 발송하였습니다.
- 4 · 11
 - 95년 1, 2, 3월 후원회 사업 및 회계감사를 두 분 감사께 받았습니다.
 - 남민전 사건으로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홍세화 님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긴급구속제에서 긴급체포제를 도입해 인권탄압의 소지는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민정련 울산지부 회원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 4 · 12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7차 정기총회 준비위 제3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범회원 선정을 한해동안 손발로 힘차게 뛰해주셨던 회원을 기준으로 선정했고 94년 특별회계 평가와 예산안을 심의하고 7차년도 일꾼들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 4 · 13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구속예술인 석방을 주제로 열린 집회에 노래패 “노래 이야기”가 함께 하였고 박노해 씨(사노맹 중앙위원. 무기형) 시 “민들레처럼” 낭송과 윤민석 씨(민애전 사건. 4년형)가 만든 노래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를 불렀습니다.
- 4 · 16
 - 양심수후원회 4월 산행을 북한산으로 갔습니다. 모두 34명의 회원이 모여 도선사-용암문-대동문-진달래능선을 따라 내려와 4.19 수유리 묘지앞에서 간단한 추모 모임을 가졌습니다.
- 4 · 17
 - 출소장기수 강철순 선생님께서 위암으로 운명하셨습니다.
 - 민가협 민주가족의 날 모임이 있었습니다.
 - 평양을 방문하여 단군릉을 참배하고 판문점으로 돌아온 대중교 김선적 종무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안호상 총선교는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 4 · 18
 -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선생님께서 송환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4월혁명연구소, 4월혁명 25돌을 맞아 4월혁명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신창균(범민련 남측 상임고문)님, 윤상원(광주 5.18항쟁 시민군)님이 수상하셨습니다.

- 4 · 19
- 4월혁명 25돌 기념식이 수유리 묘지에서 있었습니다.
 - “고 해암 강철순 선생 우인장”(장례위원장 이구영 신광현 김장곤)이 있었습니다.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 묻히셨습니다. 고이 잠드소서.
 -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 출소 환영식이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 과천, 방배경찰서는 민주노총 준비위 해고자특위 회원 나현균 씨 등을 강제연행하기 위해 사당 의원에 전경 1개 중대를 동원하여 병원에 영장도 없이 불법 난입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 4 · 20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랜세월을 간혀있는 장기수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후원회원들이 주고받는 편지낭송이 있었고 서충련 노래패 “조국과 청춘”이 힘찬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 4 · 21
- 북한소설 <용해공들>을 출판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유죄선고를 받은 일터 편집장 박치관 씨에게 서울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대구지검 공안부는 “4·9통일열사 20주기 추모제”행사와 관련하여 대경연합 의장 등 5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4 · 22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7차 정기총회가 17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종로성당에서 열렸습니다.
 - 민족회의 등 140여개 단체가 “8·15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가졌습니다.
- 4 · 24
- <말> 5월호를 장기수 선생님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 4 · 25
- 안산 우신공업 노조 5명을 구속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8개 시민단체는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에 국내민간단체들이 작성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후원회소식> 43호 편집회의를 했습니다.
- 4 · 26
- 고 강경대 열사 추모제가 명지대에서 열렸습니다.
- 4 · 27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가수 김현성(이등병의 편지 작곡자)씨가 노래를 해주셨고 국가보안법 7조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이창복 의장, 박치관 님이 나오셔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셨습니다.
 - 불교인권위 등 9개 단체가 석탄절을 맞이하여 양심수 대사면 촉구를 하였습니다.
- 4 · 28
-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 안기부는 외국어대 박창희 교수를(61세) 국가보안법 회합통신죄를 적용하여 구속하였습니다.
 -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 생활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 4 · 29
- 미결 양심수 96분에게 영치금을 보내드렸습니다.
 - 미국 수도장로교회 자녀돕기 성금을 전해드렸습니다.
- 4 · 30
- 이두균 선생님, 교회연이 동아일보사 연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 경북 점촌에 사시는 박문성 선생님께서 84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권 소 식

행정편의적 교도행정을 규탄한다.

- 자살 행위행위 막는다며 감방 창문 완전봉쇄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안재구씨(63세. 미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를 면회한 가족들에 따르면 교도소(소장 송선홍) 당국은 4월 15일부터 갑자기 법무부 지시라며 안재구씨가 수감되어있는 방 창문을 비롯해 독거수용자 방 창문을 모두 봉쇄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감방 창문 봉쇄는 두꺼운 철판으로 창을 완전히 막고 철판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으로 이는 재소자에게 햇빛도, 공기도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이다. 하루 30분의 운동시간(2-3명 칸 막이 운동장에서 햇볕보는 정도) 외에 하루 종일 감방에 갇혀 지내야하는 재소자에게 창문봉쇄는 위생건강상으로도 치명적인 조치이다.

영등포 교도소에 따르면 이번의 창문 봉쇄는 재소자간의 격리와 자살 방지를 이유로 한 것으로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격리가 목적이라는 것은 재소자를 독방에 수용하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자살방지용이라는 이유는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창살에 끈을 달아서 목매 자살하는 재소자가 있으니 '문제의 창살'을 없애버리면 자살을 하지 않지 않겠냐는 것은 세살 먹은 아이도 웃을 유치한 발상이다.

교도소의 설치 목적을 단순히 재소자를 사회와 격리하는데 있지 않고 교정교화를 통해 재교육을 하는 장으로 인식한다면 이와같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행정편의적 발상과 기도를 중단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 창을 봉쇄한 철판은 뜯어버려야 하며 목책도 철거해 재소자에게 최소한 자기 감방에서 만이라도 햇빛과 공기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건강을 위해 부식을 팔지 않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 전국 30여개 교도소에 '자비부담 물품 공급관리 개선대책' 방안을 지시하였다. 법무부는 이 조치에 대해 "그동안 각 교도소는 행행법 22조1항 동 시행령 91조에 의거 재소자 자비 부담으로 부식 등 물품을 판매했으나 업무가 번잡하고 고기류 등 일부 품목이 변질 우려가 있어 재소자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어 공급품목을 대폭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다.

자비 물품 공급중단으로 인해 재소자가 자비로 구매할 수 있던 콩치통조림, 무말랭이, 깐마늘, 돼지훈제, 고등어 통조림 등 수십종의 부식류가 완전히 금지되고 사실상 구매할 수 있는 부식류는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대해 재소자들은 “작년 추석 서울구치소에서 추석특식으로 판매한 통닭이 곰팡이가 슬고 부패해 재소자들이 집단식중독을 일으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고기류 등 부식류를 판매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재소자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이 열악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교정당국이 재소자의 식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하지도 않은채 재소자가 자신의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부식을 완전 중단한 것은 재소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처사이다. 행형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자비부담 물품 구입 문제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경찰, 장관 면담하러간 전해투 노동자 집단구타

지난 4월 18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성사를 위해 노동부 사무관과의 협의아래 과천정부청사 정문을 들어서던 전해투 대표자 5명이 전경150여명에 의해 집단구타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자리에서 9명은 실신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3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이 강제연행되었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사당의원에 불법적으로 영장도 없이 난입하여 다수의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병원의 업무를 마비시켰다. 병력을 600여명으로까지 늘려 배치한 경찰은 이어 4월 20일 새벽 2시 50분경, 전경의 집단구타로 실신, 입원하여 있는 해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기 시작, 마구잡이로 분말가스를 뿌리며 진입하였고 영장기재인이 아닌 입원환자 2명까지 강제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보수언론에서마저도 경찰측의 불법적인 행위를 비판할 정도로 무리수를 쓰면서 감행된 4.18 노동부, 경찰의 해고노동자 폭력사태는 중대한 인권침해, 민원방해, 공민권 행사제한이며 더우기 입원한 환자를 사전영장 제시 없이 연행한 일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있다. 이에 대해 전해투 지원대책위와 민주노총 준비위는 경찰폭력 진상규명과 사당의원 불법점거 규탄과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공동대책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천석복(현대중공업 해고노동자)씨 등 모두 8명이 구속되어 현재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최남규 선생님께서 '사당의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최남규(84세, 89년 청주감호소에서 출감) 선생님께서 신경쇠약 등 노환으로 지난 4월 10일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잠시 퇴원하셨으나 폐질환 등으로 4월 29일 다시 사당의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선 촬영 등 검사결과에 따르면 왼쪽 폐 절반이상 오른쪽 폐 1/3 정도에 결핵균이 침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높은 열로 한때(5월 2일 39도) 몹시 괴로워 하시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균 침투 정도가 심한 편이어서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금 여러 증상으로는 혼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간병이 요청되고 있으나 관심있는 분들께서 낮에는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 낮에는 전문 간병을 쓰기로 하고(하루 27,000원) 밤에는 선생님을 염려하는 여러분이 돌아가며 자원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서 나오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통일된 조국, 고향에 가실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봉사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 사당의원 (전화) 532-0731 303호실
양심수후원회 (전화) 765-5282

강철순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분단된 조국을 아파하고 통일만을 염원하다 오랜 옥고를 치루고 나오셨으나 끝내 평생 염원을 못 보시고 또 한분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강철순 선생님께서는 조국 최남단 제주도에서 태어나 고향과 부산 등지에서 중등교육을 받으셨으며, 뜻한 바 있어 혼자 몸으로 일본에 가시어 관서 외국어대학에서 수학하셨고 일본문학학교를 나오셨습니다. 해외에 계시면서 민족교육의 절실함을 느껴 재일민족학교 교사로 봉직도 하시면서 문학씨클에서 문필활동을 하시다가 이승만 독재를 몰아낸 4.19혁명 뒤 고국에 돌아와 일본어 교사 등 어렵게 생활하시던 중 일본에서의 문필활동에서 조국통일 염원을 담은 내용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8년 옥고를 치루시고 89년 출감하셨습니다.

1990년 민가협이 주관한 '이시대 옥중 서화전'에서 이구영, 이명직, 오병철, 신영복 선생님 등 여러분의 작품 모두를 표구하시는 등 이제까지 매우 외롭게 지내면서 표구일을 해오시다가 오랜 옥고에서 빚은 간질환 등 지병으로 95년 4월 17일 05시 통일조국을 못 보신채 한 많은 삶을 다하셨습니다.

선생님 가시는 길은 이구영, 신광현, 김장곤 선생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명직 선생님을 호상으로, 신영복 선생님 등 옥중 동지들과 한목회, 한백교회, 여러분, 유가협, 민가협 회원들을 장례위원으로 하여 4.19 09시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서 영결식을 갖고 12시 파주군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 유족들과 동지들의 오열 속에 고이 묻히셨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양화숙 님과 큰 아드님 강희봉, 작은 아드님 강희영, 큰 따님 강희란, 작은 따님 강희설 그리고 성민, 성주, 성진, 성현 손주들이 있습니다.

강선생님의 둘째 따님 강희설씨는 89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으로 서충련 평양축전 준비위원장을 맡아하다 8개월 옥고를 치루기도 했습니다.

■ 고 해암 강철순 선생님 약력

- 1934.2 제주도 북제주군에서 태어나심
- 1946 부산 동아중학교 졸업, 일본에 가심
- 1953 일본 오오사가 관서 외국어대학 2년 중퇴
- 1956 일본 문학학교 졸업
- 1957 일본 민족학교 교사
- 1963 두 아드님 데리고 귀국
이후 일본어 교실 등 하며 사심
- 197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무기선고
- 1989 출감하심
- 1990-95 해암표구사 경영
- 1995. 4. 17 05시 연세대 병원에서 돌아가심

4월에 구속된 양심수

6월 지자체를 앞둔 4월에는 35명의 양심수가 발생했다.

기초의회 의원 출마를 앞두고 있던 광주지역 재야인사, 정부가 약속했던 해고 노동자의 원상복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을 만나러 간 전해투 소속 노동자를 비롯, 평화적으로 파업농성을 하던 사업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17명의 노동자가 업무방해나 폭력혐의로 구속되었다.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에 연이어지는 대거 구속은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월 7일 - 김병갑(효성바스프), 김훈(유공 해고자), 박예성(현대금강개발 울산지부장)

4월 9일 - 울산 남부지역 노동자연대를 위한 모임 추진위 소속 회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고진범(민정련 울산지부 지부장) 최미아(울산지부 상근일꾼) 진정희(민정련 울산지부 회원) 유미희(남연추 편집부장) 최영민(울산노동정책 교육협회 간사)

4월 10일 - 김영집(92년 광주전남 연합 정책실장) 기초의회 출마 신청서를 받은 날, 92년 연합 활동을 뒤늦게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4월 12일 - 허난정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수배중 구속

4월 17일 - 포항 유일교통 노동조합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업무방해, 폭력 위반 혐의로 구속 : 오호창(노조위원장) 윤영배(쟁의부장) 차천영(경비대장)

4월 18일 - 북한 단군릉 참배하고 돌아온 대중교 김선적 종무원장,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

4월 19일 - 이병길 : 전 인천대 총학 부회장. 병역법 위반 구속

4월 21일 -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안산 우신공업 노조 파업 농성장에 구사대 150명이 동원되어 노조원 7명이 크게 다치고 위원장 등 간부 5명이 구속됨 : 홍춘표(노조 위원장) 김승학(노조 사무장) 정상영(노조 운영위원) 염태우(산업안전부장) 정병준(후생복지부장)

- 노동부장관 면담하러간 전해투 소속 노동자 : 천석복(현중) 나현균(코리아타코마) 김현준 이기호(삼미특수강) 이영호(부산지하철) 채규전(동양이화)

4월 25일 - 박창희 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 일본 메이지대 출신의 '고려사' 전공 재일사학자 서태수(71세)씨를 접촉한것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

- 노동청 항의시위와 관련하여 공동체학생연대 소속 학생 2명 구속 : 윤상근(국민대) 오상훈(홍익대)

4월 26일 - 부산지역철거민연합 창립대회를 마치고 집회허가서를 낸 거리행진 때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하여 3명을 구속 : 전종철(부철연 의장) 김몽룡(동의대) 김정원(경성대)

4월 30일 -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 진재후 씨, 고 이철규열사 추모 행사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4년 전남대 동아리연합 학술부장을 지낸 양성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재판소식

김재용(한총련 2기 의장)

: 2심에서 집행유예 출소

구국전위 항소심 마쳐

: 안재구(기각, 무기징역) 류락진(8년) 정화려(기각, 10년) 박래균 이영기 김김진국(기각, 각각 4년형) 홍중희(3년6월) 유성찬 박화국(기각, 3년6월) 안영민(1년 10개월)

회원소식

회원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소식지는 재미있게 읽어보시고요? 회원소식란을 회원 여러분의 살맛나는 일상의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우리 후원회의 오랜 회원이자 후원회가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 신유호 회원과 임

은영 회원이 4월 30일, 이대 강당에서 새결음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하세요!

* 운영위원이신 이균영(동덕여대 국사학과) 선생님께서 <노자와 장자의 나라>라는 장편소설을 중앙일보사 편집부에서 출판하셨습니다.

* 김현희 회원께서 영문학을 공부하러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 김성림 회원의 따님 유선영 아기가 첫들을 맞았습니다(4월 11일).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라나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이대 87학번 모임인 '희망찾기'의 송정숙 회원이 지난 4월 23일 결혼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 한지훈 회원님께서 4월 25일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후원회 운영위원을 해주셨던 김영옥 선생님 아드님 김상천 씨가 5월 28일 수운회관에서 화축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미국수도장로교회(조명철 목사)에서 지난해 장로교수도교회 한인교회 연합회 주최로 연 서예전의 수익금 75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2월에는 3,198,84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강성순(전교조 제주지부) 채일병(창천동 <한>) 문주현(마포구 신수동) 박상규(강북구 미아9동)



◀ 진달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16일, 북한산 진달래능선을 걷다가 잠깐 땀을 식혔다.

• 5월 산행 •

살아남은 사람들의 양심과 가치를 되돌아보게하는 오월입니다. 그날들의 핏빛 외침이 온 겨레를 울립니다. 이 오월, 관악산에 모여 오월열사들의 못다 이룬 꿈을 살아남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 언 제 : 1995. 5. 21. 이른 10시 • 어디로 : 관악산
- 모이는 곳 :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가 매표소 앞
- 준비할 것 : 회비 3,000원 맛있는 도시락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국민의 땀과 힘에 의해
이땅에도 군사독재가 끝장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정부는
국민들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800명이 넘는 양심수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감옥안에는 5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심수 중에는 적게는 10년, 심지어는
44년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6명이나 됩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않고 햇빛 한점 자유롭게 맞볼 수 없는 분들께
감옥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께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 결연을 추진합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